

독일 신학대학과 독일 교회는 어떻게 목사를 양성하는가 독일 신학생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가

전 철 | 신학동네 (theology@theology.co.kr)



Heidelberg 2004|07|14

독일 국립대학과 신학대학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이 땅 어디에서나 그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고, 고뇌하거나,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신학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존재하겠지요. 독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독일은 오래된 교회적 전통과 문화와 신학적 유산을 면면히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독일의 대학과 학교는 중세시대 교회의 성직자 양성이라는 목표에 기원을 두고 있기에 대학교육과 신학은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문을 통하여 신과 교회와 신앙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이해하고 연구하고자 신학대학에 들어오는 청춘들에 있어서, 독일대학과 신학교육 프로그램은 아주 잘 구비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본인의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의 신학대학 수학(2000.10-2008.2)을 바탕으로 독일 신학대학에 관한 여러 제도적 과정, 학제운영,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을 주관적 경험에 의거하여 여러분과 더불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90]

독일의 개신교(Die Evangelische Kirche in Deutschland)에는 루터교, 개혁신교, 연합교로 이루어진 23개의 주지역총회(Landeskirchen)가 존재합니다. 2005년의 국가 통계에 잡힌 독일 개신교인의 숫자는 약 2천 5백 40만 명이며, 독일 개신교를 구성하고 있는 개교회는 1만 6천 1백여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세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독일 대학의 발흥과 신학연구를 통한 성직자 양성 프로그램이 이미 긴밀하게 관여되어 있기에, 독일 국립대학

에는 대부분 신학대학이 존재합니다. 독일에는 가톨릭신학대학과 개신교신학대학을 포함하여 약 30여개의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국립대학은 개신교 신학대학만 존재하지만, 튀빙엔 국립대학과 같은 곳은 가톨릭과 개신교 신학대학이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학대학의 학제에서는 신학대학(Th.B)과 대학원(M.Div/Th.M)이 구분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독일의 국립대학과 신학대학은 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실질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독일 신학대학의 수업기한은 최소한 6년의 학업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학업과정 가운데 본인에게 수여된 과제를 이수하고 모든 절차를 마치면, 신학 석사로서 졸업이 되고 향후 교회와 교육기관과 신학기관에 봉사를 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에서의 신학수업

독일 신학대학에 입학할 때 학생들은 두 과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국가의 관리를 통하여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석사과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학과 국가시험을 통하여 신학석사로 인정받는 디플롬과정(Diplom)과,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종교교육교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종교교육 교사 석사과정(Lehramt)으로 구분이 됩니다. 종교교육 교사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예를 들어 독문학, 수학, 정치학, 역사학 가운데 한 전공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다른 하나는 주[91]지역총회의 관리를 통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의 시험(Kirchliches Examen)을 합격을 목표로 목사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공부하는 신학석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국가시험을 거쳐 졸업 후 종교교육교사를 소명으로 하는 신학생들과, 교회시험을 거쳐 독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소명으로 하는 신학생들로 구분이 되곤 합니다.

전자인 종교교육 석사 과정, 그리고 일반대학의 대부분의 학과는 다른 전공이 병행 요구되는 것과는 달리 신학석사는 신학전공 하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독일에서도 신학이라는 학문은 폭과 깊이가 넓은 학문으로 제도적으로 용인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6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배우고 이수해야 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신학전공 하나만으로도 벅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원한다면 복수전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독일 학제의 특성에 의거해서 신학전공과 의학전공을 병행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과제를 어려움 없이 수행할 경우에는 신학석사와 의학석사를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성서를 매우 주요하게 다루는 신학의 학문적 특성상 성서원전에 대한 중요성은 신학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에 김나지움에서 이미 제2외국어 대신에 고전어를 마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회자의 소명을 지닌 모든 신학생은 고전어를 약 4-6학기가 소요되는 기초학기(Grundstudium) 동안에 의무적으로 마쳐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수학을 하였던 하이델베르크 대학 신학부에는 신학과에 재학하는 재학생, 그리고 박사학위 과정의 학생들을 위하여 고전어 강좌가 매 학기마다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히브리어는 한 학기, 그리스어는 두 학기, 라틴어는 두 학기의 시간과 투자가 각각 소요되곤 합니다.

특히 그리스어와 라틴어는 연방주(Bundesland)에서 주관하고 검증하는 시험을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학생들 뿐만 아니라 독일학생들도 많은 노고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신학부에서는 고전어 어학시험이 불[92]합격될 경우에 신학과 졸업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독일 신학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분명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몇 년의 고전어 훈련을 거치면 성서 본문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시도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신학과 목회를 위한 성서연구를 위해서는 아주 유익한 장점으로 기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대학의 수업방식

대학 및 신학대학의 강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포어레중(Vorlesung), 프로세미나(Proseminar), 하우프트세미나(Hauptseminar), 오버세미나(Overseminar), 위붕(Uebun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학 각 분과의 전반적인 개요와 윤곽을 다루는 포어레중(Vorlesung)이 있습니다. 보통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포어레중을 참여하며, 지도교수는 준비한 강의내용을 읽고 학생은 받아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포어레중에는 신학부의 고학년 학생들이 따로 강의에 유익한 소모임을 마련하여 강의에 참여하고 있는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배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어레중을 진행하는 교수의 강의 원고는 긴 시간동안 교수의 수정과 첨가를 거쳐 향후에는 그 분야의 유익한 참고자료와 신학적 개론서로서 출간이 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미나(Proseminar)는 포어레중의 주제와 결부되어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주로 프로세미나에서는 각각 분과 학문의 방법론을 근본적으로 익히고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컨대 성서학 프로세미나는 성서 텍스트를 주해하는 다양한 학문적이고 비평적인 방법론을 전반적으로 배우고 익히며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룹니다.

하우프트세미나(Hauptseminar)는 각 분과의 영역에 관한 특별한 주제들을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세미나입니다. 프로세미나는 각 분과의 일반적인 방법론[93]을 습득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우프트세미나는 하나의 특정한 신학적인 주제를 주체적으로 분석하고 다루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미나 학기가 끝나면 하우프트세미나 참가자는 한 학기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을 과제논문(Hausarbeit)을 통하여 작성하여 교수에게 제출하고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오버세미나(Overseminar)는 주로 고학년 학생들에게 유익한 세미나로서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논쟁으로 한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입니다. 그리고 콜로키움(Kolloquium)은 박사과정생(Doktoranden)이나 교수자격논문을 쓰는 하빌리타치온 과정생(Habilitanden)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가장 격렬하게 논쟁과 토론이 이루어지는 모임입니다. 각 박사과정생이나 하빌리타치온 과정생을 직접 도제식으로 지도하는 지도교수(Doktorvater)의 자율적 재량에 따라 구성원을 초대하여 이루어지는 모임이며, 지도교수는 본인이 직접 지도하는 제자들 이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학생들과 연구자, 그리고 교수들을 초대하기도 합니다.

위붕(Uebung)은 포어레중과 세미나의 주제에 관련한 주제 혹은 텍스트를 같이 읽고 심화해 나가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신학대학 졸업과 30개월의 목회훈련

독일의 신학생들은 학교를 바꾸어가며 자유롭게 독일 전국각지의 신학대학에서 학문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은 그가 속한 주지역총회가 있는 신학대학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통 6년의 신학수업을 최종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고전어와, 각 분과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수업 및 세미나 과제를 성취하고, 마지막으로 주지역총회에서 주관하는 1차 졸업시험을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6년간의 신학수업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94]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각별한 준비와 스트레스 속에서 마지막 졸업학기를 보내게 됩니다. 시험의 내용은 각 과목의 필기시험과 구두시험, 그리고 약 30-40장의 논문 제출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최종적 평가를 통하여 졸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년동안 대학의 자유롭고 치열한 학문적인 훈련이 끝나면, 신학생들은 본격적으로 목사직 준비와 수행을 위하여 약 3년간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에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독일에서 통상적으로 6년간의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목사후보생(Vikar)이 목사가 되기 위한 일반적인 과정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목사후보생들은 30개월 동안 개교회(Gemeinde)에서 목회실습의 훈련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후보생들은 본인들의 멘토인 개교회 담임목사의 지도 속에서 훈련을 받게 되며, 동시에 본인이 속한 주지역총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세미나(Praedigerseminar)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각 주지역총회에는 이러한 세미나가 상시에 진행될 수 있는 교육공간과 교수진,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실속 있게 짜여 있으며 역사적 경험 속에서 뿌리 깊게 정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유아세례와 종교교육, 견신례로부터 결혼식, 교인들의 영적 조력, 그리고 장례식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일상생활에 깊이 스며 있는 교회적이며 종교적인 양식과 문화를 숙지하고 조력하며 실천하는 과제는 목사후보생들이 배워야 할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30개월 동안 목회실습과 병행으로 진행되는, 소위 ‘인턴과정’ 으로서의 세미나 프로그램은 목회현장에서 요구되는 여러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검토하는 아주 의미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0개월의 개교회 실습과 주지역총회 세미나 과정을 거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전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30개월 동안 목사후보생을 멘토로서 지도하고 지켜본 담임목사의 평가서(Dienstzeugnis)가 아주 중[95]요한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후보생이 개교회의 교인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지 못하거나, 그리고 교인과 담임목사로부터 목회자와 성직자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담임목사와 주지역총회는 30개월의 목사후보생 교회실습 과정 속에서 목사후보생에 대한 투명한 평가와 냉정한 판단과 감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담임목사의 목사후보생에 대한 최종 평가에 있어서 성직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의 함량미

달이라는 평가가 주어지게 되면, 이 경우 주지역총회는 후보생에게 목사직을 원칙적으로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주지역총회에서 이 모든 검증의 과정은 비교적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전제는 목사고시의 합격입니다. 목사고시는 세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교회학, 윤리학, 주석학 등등 4과목을 치루는 문서시험과 교회법, 설교론, 교육학 등등 6과목의 구두시험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적 영역에 관하여 예배, 종교교육, 영적조력, 구체적이며 다양한 교회프로젝트 등등 약 6과목의 실연과 실습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2차시험의 합격과 목사직 수여는 주지역에 목회자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목사후보생이 주지역총회에 속한 목회자로 정식으로 임명되면 주지역총회는 목회자에 대한 관리와 조력을 평생 하게 되며,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에 대한 보장이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독일 목회자들의 봉급평준화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연대성의 한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신학 교육과 목회자 양성 교육은 독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 23개의 주지역총회의 권한 하에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됩니다. 또한 신학대학을 나온 목회자들은 대부분 본인이 속한 주지역총회 내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속한 주지역총회 내의 교회를 떠나 다른 주지[96]역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강력하고 뿌리 깊은 지방분권과 연방국가적 전통이라는 독일의 역사적 개성 속에서 발현된 독특한 교회적 양식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개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지적이고 영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의미로서, 목회자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주지역 총회에 속한 신학대학에서의 연구 및 수업, 그리고 세미나(Praedigerseminar)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지닌 프로그램(Kontaktstudium)은 목회현장에서의 실천을 신학적인 차원 속에서 성찰하고 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독일교회와 목회자의 고민과 과제

교회는 체제 안에 존재하지만 새로운 체제를 꿈꾸는 대안의 공간이자 그리스도의 몸일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유토피아를 꿈꾸고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독일의 교회는 구체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도전과 위기 앞에서 교회가 어떠한 방식의 대안적인 세계체제를 구상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참고. M. Welker/M. Wolter (Hg.), Jahrbuch fuer Biblische Theologie, Bd. 21: Gott und Geld, Neukirchener Verlag: Neukirchen-Vluyn 2006). 또한 매우 세련된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세속화되고 문화화 된 독일의 기독교가 어떻게 그 독자적인 개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교회적인 교육, 문화, 사회봉사, 문명비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화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학에서의 신학 수업을 마치고 세상의 희망으로서의 교회를 고민하는 독일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고민은 맥락과 현실은 상이할 수 있으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민과도 다를 바 없는 진지하고 원형적이며 상호 연대성을 지닌 것들이라고 여겨집니다.